2025년 제4회 안동권씨종친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 개최

안동종친회(회장 권철환) 주최 "2025년도 제4회 안동권씨종친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가 작년 12월 26일 오후 4시 안동 두리원웨딩 2층 연회장에서 원로원 회원, 각 파종회장, 지회장협의회 회장단, 총무협의회 회장단, 부녀회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1, 2부로 나눠 1부 행사는 권기원 사무국장의 사회에 따라 국민의례, 시조 묘소 망배, 회장 인사, 축사, 경과보고, 감사보고, 2025년도 결산보고 및 신년인사회 결산보고,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기타 토의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권철환 회장은 참석한 내빈을 소개하였다. 권재주 원로원 의장을 비롯하여 권계동, 권주연 두 고문, 권기창 안동시장 부부, 권오극 전 안동향교 전교, 권기호, 권중덕 원로원 두 부의장, 권중근 파종회장협의회 회장, 권영준 동정공파회장, 권기수 별장공파회장, 권순협 전 별장공파회장, 권오길 정조공파회장, 권기만, 권순복 전 정조공파 두 회장, 권용주 성균관유도회 안동지부장, 권오익 대종회 안동사무국장, 권광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권기윤, 여주희 안동시의회 두 의원, 권석환 안동문화원장, 권기욱 지회장협의회 회장, 권동현 총무협의회 회장, 권기섭 능곡회장, 향원 해인사 스님 등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근무시간을 마친 후 늦게 행사장에 참석하였다. 권영창 대종회 회장, 안동원로원, 파종회장협의회, 지회장협의회, 능곡회 등 다섯 군데에서 대형화환을 보내와 축하를 하였다.

권철환 회장은 인사말에서 "을사년 한 해는 다사다난했으며 안동권씨 전국체육대회를 안동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또 시조님 춘, 추 향사를 무사히 마쳤는데 이는 족친 여러분의 도움 덕분"이라고 말하고 "내년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권재주 원로원 의장은 축사에서 "안동종친회 총회를 여러 번 개최했으나 오늘처럼 이 같은 장소에서 개최하여 아주 좋으며 무엇보다도 종친회의 단합된 힘을 보여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권기수 수석부회장, 권중근 파종협의회 회장, 향원 스님, 권석환 원장, 권용주 지부장, 권기섭 능곡회장 등이 돌아가면서 차례로 축사를 하였다.

이어 권기원 국장이 올 한 해 동안 종친회에서 일어난 각종 행사 53건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권오갑, 권세종 두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다. 2025년도 결산보고 및 신년인사회 결산보고와 202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2026년 안동권씨 안동종친회 신년인사회는 오는 3월 1일 안동시청 대동관 영남홀에서 개최하며 명첩(名帖) 발행은 물론, 신년인사회 때 참가자에게 1인당 회비 1만원 받기로 합의했다. 주최 측은 참석자 전원에게 쌀 1.5kg들이 1부대와 나눔과 치유어르신주간보호센터에서 마련한 물티슈 한 통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총회가 끝나자 참석자 전원은 뷔페식으로 저녁을 먹은 후 노래자랑으로 여흥을 즐겼다.

2부 행사는 권용덕 안동종친회 사무차장이 사회를 보면서 진행하였다. 권 사회자는 "올 한 해 고생이 많았으며 저녁에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자"고 당부했다.

초청 가수 권대일 성악가가 '만남' 등 세 곡을 멋있게 부르자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본격적인 노래자랑에서 사회자가 '우정의 노래'를, 권순택 지회장협의회 사무국장이 '고장난 벽시계', 권동현 총무협의회 회장이 '최고 친구', 이정희 정조공파 서무과장이 '동백아가씨', 권숙경 용상동 부녀회장이 '기차놀이' 등 15명이 앙코르까지 받으며 신나는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업무를 마친 권기창 시장이 행사장에 도착, "근무시간에 나오면 선거법에 저촉되므로 근무시간이 끝나서 왔다"고 말하고 "권문의 아들로서 안동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권영건 보도부장

삶의 품격은 태도에서 완성된다

신중년의 루틴이 말해 주는 것들

권원희 (한국평생직업교육원 원장/36世 복야공파)

속도보다 방향을 점검하는 시기

삶에는 어느 순간부터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점검하게 되는 시기가 온다. 더 이상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게 되고, 대신 어떤 기준으로 살아왔는지가 조용히 드러난다. 성취의 크기보다 삶을 이끌어온 태도의 결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신중년의 삶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리의 문제다. 무엇을 더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반복하며 살아갈 것인가가 삶의 결을 만든다. 이 시기에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것은 재능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루를 대하는 태도다. 하루를 대충 넘기지 않는 자세, 스스로에게 흐트러지지 않으려는 기준이 삶의 중심을 세운다.

삶을 다시 작동하게 하는 부지런함

신중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태도는 부지런함이다. 부지런함은 성과를 위한 미덕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도 정체되고 감정도 가라앉는다. 의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리듬이 무너진 경우가 더 많다. 특별한 계획이나 결심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는 단순한 루틴이다. 걷기나 정리, 짧은 기록처럼 사소해 보이는 반복이 하루의 중심을 잡아준다. 의지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몸을 먼저 움직이는 태도가 삶을 다시 작동하게 한다. 부지런함은 삶을 끌어올리는 가장 현실적인 힘이다.

덜어낼수록 단단해지는 삶

삶은 단순할수록 단단해진다. 신중년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과도해서다. 이미 충분히 살아온 삶에 불필요한 물건과 관계,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겹겹이 쌓이며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이제는 무엇을 더 채울지보다 무엇을 덜어낼 것인지를 묻는 시기다. 단순함은 포기가 아니라 기준이며, 삶을 가볍게 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하는 힘이다. 줄인 삶은 비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택의 결과가 담겨 있다. 단순해진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올바름이 삶의 방향을 만든다

신중년의 삶은 올바름 위에서 완성된다. 오래 살아온 시간만큼 삶에는 축적된 판단의 기준이 있다. 말 한마디, 소비 습관, 하루의 선택에 기준이 서 있으면 일상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기준 없는 자유는 결국 삶을 피로하게 만든다.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도덕적 당위가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태도다. 그 태도가 반복될 때 삶은 방향을 갖게 된다. 신중년의 품격은 말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에서 조용히 드러난다.

맺음말

신중년의 삶은 더 증명할 것이 없는 단계다. 대신 어떤 태도로 하루를 살아갈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시기다. 삶의 품격은 거창한 결심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반복되는 하루를 어떻게 대하느냐,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기준을 지니고 있는가에서 완성된다. 삶은 결국,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얼굴과 태도를 닮아간다.

전통 유향(儒鄕) 출신의 유학자를 기리는 합천군 대병면 죽헌정사 정례회 개최

경남 합천군 대병면 성리(대발골) 마을은 조선 초기 감정공(16세, 휘 집덕) 선조께서 터 잡은 이래 근세까지 전통의 유향(유학의 고장)으로 이름난 곳이다. 이곳에서 지난 2026년 1월 3일, 40여 명의 일가친척과 마을 주민이 모여 안동 권씨 문중 출신 유학자를 기리고 추모하는 죽헌정사(竹軒精舍) 정례회의 전통을 이어 나갔다. 1935년 시작되어 90년 넘게 지탱해 온 이 모임은 선조 숭모와 가문 결속 및 마을 공동체 화합의 장으로 굳건히 자리를 잡았다.

이 정례회는 일헌(一軒) 권재환 선생과 현암(弦菴) 권재성 선생 형제가 영남 유학 정신의 계승을 위하여 창립한 죽헌정사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설암(雪嵒) 권옥현 선생과 경암(鏡菴) 권청현 선생으로 전승되었다, 특히 설암 선생은 '20세기 마지막 선비'로 불릴 만큼 학덕이 높았으며 《설암문집》 18권을 남겼다. 지금은, 설암의 장남인 미남(薇南) 권사영 공의 유지를 받들어 장손 권석근 ㈜세일사 회장을 비롯한 중근, 일근, 영근 등 집안 후손들이 선대의 숭모 사업과 기념회를 주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들 집안 후손은 물론, 권영록 씨를 비롯한 마을 주민도 다수 참여하여 전통 보존과 마을 화합의 장으로 펼쳐졌으며, 참례한 주민들은 바쁘고 각박한 시절에도 빠짐없이 선조의 유덕을 기리는 문중의 헌신과 노력에 경의를 표했다.

또한, 부산에서 활동 중인 한학자 정영만 박사가 제례 후 강론을 통해 안동 권씨 감정공파 파조인 감정공(監正公) 권집덕 선생의 생애와 한천재(寒泉齋)에 대한 자료와 역사를 재조명하여 더욱 뜻있는 집회가 되었다. 발표에 따르면 "고려 말, 조선 초 관료이자 합천 입향조인 권집덕 선생의 묘소는 전방후원 형태로 독특하며, 2009년 경상남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됐다."한다. 또 "재실인 한천재는 주자의 한천정사에서 따온 이름으로 1960년대 중건 당시 무려 1,200명이 넘는 후손이 참여해 약 210만 원에 달하는 성금을 모아 3년에 걸쳐 완공했다."고 하였다. 이는 오늘날 화폐로 환산해도 거액이라 당시 문중의 일심단결을 상징하는 매우 의미 있는 기록이다. 합천 대병의 성리(대발골) 마을은 예로부터 안동 권씨 집성촌으로 많은 유학자를 배출한 곳이다. 한훤당 김굉필의 문하로 학림서원에 배향되신 삼괴당(三槐堂, 20세 휘 시민) 공을 비롯해 호조정랑을 지내 일신정(日新亭, 21세 휘 일) 공 등이 대표적이다. 또, 임진왜란 때 화음공(花陰公, 23세, 휘 양) 선생이 형 판관공(휘 해)과 함께 창의(倡義)하여 싸운 악견산성이 있는 역사적 현장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근세까지 삼외재 권명희, 만재 권재춘, 일헌 권재환, 현암 권재성, 삼란 권영두, 설암 권옥현 등으로 유학의 맥을 이어온 유서 깊은 고장이다.

부산종친회 사무국장 권채영

전주, 완주종친회 2026년 시무식 개최

전주,완주종친회(회장 권봉철)는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지난 1월 5일 전주,완주종친회 회의실에서 회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였다. 이날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권봉철 회 장은 지난해에 종친회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종친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병오년 새해에도 종친간의 화합 과 단결을 굳건히 하여 종친회의 발전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종친회의 전통을 계승하고 장학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그리고 고령으로 인하여 회원이 매년 줄어가는 안타까움을 표하고 새해에는 젊은 회원과 여성 회원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회원 증원에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권기성 종친은 종친회 발전을 위하여 찬조금 100만원과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하여 참석자들의 큰 박수와 감 사의 뜻을 받았다. 이번 기탁은 종친회의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한 뜻깊은 나눔으로 종친회의 귀감이 되었다. 또한 이날 중식은 권오초 재무가 떡국으로 회원들을 정성껏 초대 하였으며, 권오신 종친은 매년 변함 없이 떡을 협찬해 주고 있으며, 권윤택 종친은 표고농장을 운영하면서 올해도 표고가루 1통씩을 전 회원에게 협찬해 주어 시무식의 의 미를 더욱 훈훈하게 하였다.

전주,완주종친회는 이번 시무식을 계기로 병오년 새해에는 종친 간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여 종친회 발전과 장학사 업 확대를 위해 힘써 나갈 것을 다짐하며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전주, 완주종친회 총무이사 권영춘

2026年 2月 종보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12.29. ~ 26.1.27. 총 납부자 35명 총 1,290,000원

(이름순) (단위: 원)

권대성 (서울 동대문) 30,000	권승전 (강원 강릉) 30,000	권영태 (경북 구미) 30,000	권용호 (서울 송파) 30,000	권해조 (서울 서초) 30,000
권사호 (경남 창원) 30,000	권영대 (경기 용인) 30,000	권영학 (경기 성남) 30,000	권용훈 (대전 대덕) 30,000	권혁명 (서울 강동) 30,000
권순범 (충북 청주) 30,000	권영민 (경북 포항) 30,000	권오실 (서울 강동) 30,000	권재옥 (경기 화성) 30,000	권혁 중(경기 안양) 30,000
권순봉 (경기 성남) 30,000	권영상 (충남 논산) 30,000	권용완 (경기 성남) 30,000	권재희 (강원 철원) 30,000	권혁진 (서울 관악) 30,000
권순의 (충북 진천) 30,000	권영수 (경북 안동) 30,000	권용진 (서울 강남) 30,000	권정우 (경북 안동) 100,000	권효택 (경기 양주) 30,000
권순일 (경기 고양) 30,000	권영양 (경기 양평) 30,000	권용현 (인천 서구) 30,000	권창호 (서울 종로) 30,000	권훈수 (서울 양천) 30,000
권승윤 (경북 의성) 30,000	권영언 (경기 양평) 30,000	권용호 (경기 파주) 30,000	권추현 (경남 합천) 30,000	안동권씨 안동종친회 200,000

* 연간 종보 구독대금은 3만원입니다.

<안동권씨 종보> 구독 및 협찬 안내

<안동권씨 종보>는 1974년 12월 1일 창간된 이후 50여 년 동안 안동권문을 대표하는 공식 기관지로서 안동권씨 가문의 전통과 문화를 비롯하여 선조들의 인문정신과 학문적 유산, 후학들의 지혜를 모아 매월 1일 자로 발행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 영구 보관되고 있습니다.

종보 협찬금은 1년에 3만 원이며, 종보 발전을 위해 기금이나 광고 등으로 협찬하실 분은 대종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족친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대종회 사무처 : 02-2695-2483

◯이 메 일 주 소 : andongkwonmun@daum.net

◯예 금 계 좌 : 농협 계좌 317-0009-7471-41
(예금주 : 안동권씨 대종회)

안동권씨 대종회